

특강 - III

Polypodium glycyrrhiza 의 단미 및 고미물질

김 진 웅

서울대학교 약학대학

인류는 예로부터 단맛을 선호하였으며, 여러 천연 감미료 중에서도 설탕은 생산원가가 저렴하고, 열에 안정하며 보관이 쉬운 점 등이 있어 그 동안 널리 사용되어 왔다¹⁾. 그러나, 최근 들어 설탕이 여러 가지 질병의 원인으로 의문시되고, 특히 충치를 유발하는 주 원인으로 지적되어 왔다. 이러한 설탕의 단점은 보완하기 위해 대체감미료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어 있는데, 그 목적은 물론 충치예방에도 관련이 있지만, 그외 당뇨병 및 체중조절에 이용할 수 있다는 점도 고려되고 있다.

현재까지 천연 및 합성감미료가 상당수 개발되어 있는데²⁾ 지금 전 세계적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는 합성감미료로서는 saccharin과 aspartame을 들 수 있다. 그러나, saccharin은 쥐에서 방광암을 유발시키며, aspartame은 phenylketonuria 환자에게 사용할 수 없고, 수용액 중과 열에 불안정하다는 점에서 문제시 되고 있다. 천연 감미료 중에서는 glycyrrhizin이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으나, 이 물질이 mineralocorticoid 작용이 있음이 밝혀진 바 있고, stevioside 자체는 독성이 없으나, 그 aglycone인 steviol은 mutagen으로 의심되어지고 있다. 식물 단백질인 thaumatin I, II는 감미도가 현존하고 있는 물질 중에는 가장 강하나, 열에 약한 점, 그리고 단맛이 지속되는 것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따라서 이상적인 대체감미료의 출현은 시급한 과제라 할 수 있다. 미국 특산이며 고란초과 (Polypodiaceae) 식물인 *Polypodium glycyrrhiza* D.C. Eaton은 민간에서 식용 또는 약용으로 사용되어 왔으며, 그 근경은 단맛 및 쓴맛을 나타낸다. 이 식물의 n-butanol 추출물을 silica gel column chromatography 법으로 분리한 결과, 3종의 새로운 steroid glycoside, 즉 polypodoside A-C(1-3) 와 1종의 새로운 flavonid인 (+)-afzelechin-7-O- β -

D-apioside(7)를 단리하였다. 그 외에 기지물질인 polypodine B(6), polydin(8), (+)-afzelechin(10) 및 (+)-catechin(9)을 분리동정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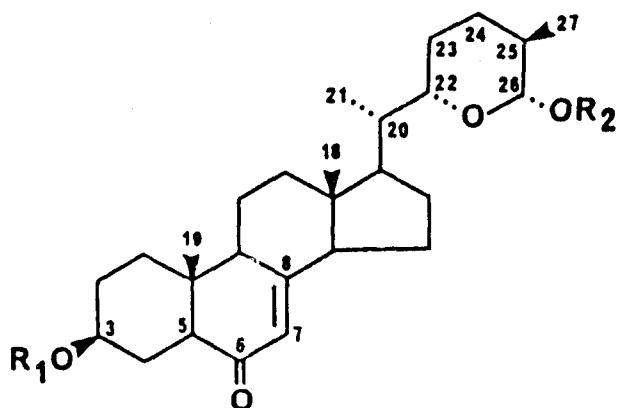
Polypodoside A-C(1-3)의 구조를 2-D NMR 법 등을 이용하여 해석한 결과, 이들 steroid glycoside는 polypodogenin(4)이라는 aglycone을 공유하고 있음이 밝혀졌고, 당시 aglycone에 치환된 위치는 selective INEPT 법을 이용하여 증명하였다.

Polypodoside A(1)는 이 식물의 주 단미성분임이 밝혀졌으며 설탕의 600배 정도를 지닌 것으로 측정되었다. 또한 이 물질은 급성 독성 및 mutagenicity에 대한 실험결과, 독성이 없고 mutagen으로서의 활성이 없음을 밝혔다³⁾. 그러나 polypodoside A(1)가 물에 난용성인 점, 그리고 감초와 비슷한 뒷맛이 남는 점 등이 이 물질의 실용화에는 장애가 되고 있다. polypodoside B(2)는 약한 단맛을 나타낸 반면, polypodoside C(3)는 전혀 단맛이 없었다.

새로운 고미물질인 (+)-afzelechin-7-O- β -D-apioside의 구조는 ^1H - ^1H COSY 및 ^1H - ^{13}C HETCOR 실험을 통해 결정되었으며 selective INEPT 법을 응용하여 4급 탄소의 chemical shift 및 당시 치환위치를 결정하였다⁴⁾.

문 헌

- 1) Hugill A.: Sucrose—a royal carbohydrate. In *Developments in Sweeteners-I*, eds. C.A.M. Hough, K.J. Parker, and A.J. Vlitos, pp.1-42, London, England, Applied Scinece Publishers, 1979.
- 2) Kinghorn A.D. and Soejarto D.D.: Sweetening agents of plant origin. *CRC. Crit. Rev. Plant. Sci.* 4, 79-120, 198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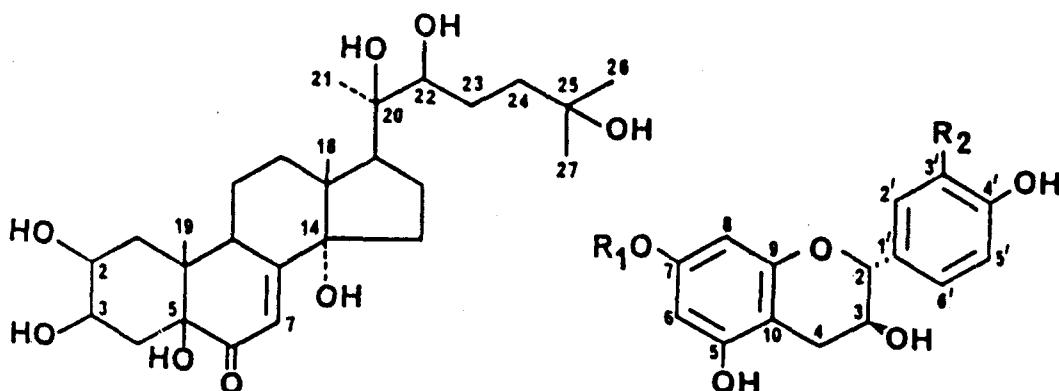
Polypodioside A (1) R₁= β -D-glc²- α -L-rha ; R₂= α -L-rha

Polypodogenin (4) R₁=R₂=H

Polypodioside B (2) R₁= β -D-glc ; R₂= α -L-rha

Polypodioside C (3) R₁= β -D-glc ; R₂= α -L-rha-3-CH₃

Prosapogenin (5) R₁=H ; R₂= α -L-rha-3-CH₃



Polypodine B (6)

(+)-Afzelechin-7-O- β -D-apioside (7)

R₁= β -D-api ; R₂=H

Polydin (8) R₁= α -L-ara ; R₂=OH

(+)-Catechin (9) R₁=H ; R₂=OH

(+)-Afzelechin (10) R₁=R₂=H

- 3) Kim J., Pezzuto J.M., Soejarto D.D., Lang F.A., and Kinghorn A.D. : Polypodoside A, an intensely sweet constituent of the rhizomes of *Polyodium glycyrrhiza*. *J. Space. Nat. Prod.* **51**, 1166-1172, 1988.
- 4) Kim J., and Kinghorn A.D. : Use of the selective INEPT NMR technique in the structure elucidation of (+)-afzelechin-7-O- β -D-apioside, a bitter principle of *Polyodium glycyrrhiza*. *Tetrahedron Lett.* **28**, 3655-3658, 1987.